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란

우리 공동체의 기도방 창문 바깥쪽에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인 듯 저녁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거미가 줄로 자기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아르헨티나의 저술가 마메르토 메나파스 신부님의 단편 소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미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튼튼하고 거대한 거미줄을 칩니다. 그래서 거미는 자기 거미줄을 바라보면서 매우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평생 걱정 없이 살며, 더는 일을 하지 않고 바뀌는 계절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미는 매일 자신이 친 줄로 산책하러 나갔는데, 세월이 갈수록 넓은 거미줄을 다 다니지 못하게 되고 청소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거미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지 않은 줄에서부터 하나씩 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줄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줄을 언제 쳤는지 기억을 할 수 없었고 무엇 때문에 그 줄이 거기에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줄의 위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줄을 잘랐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줄은 바로 첫 번째로 만든 줄이었기 때문에 그 줄의 탓에 거미는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거미는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첫 번째 줄을 잊지 않도록 꼭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창조적인 자세는 하루를 열심히 줄을 치듯이 나의 현재를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수동적인 자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노력 없이 과거에 머무르듯 사는 거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님의 талан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마태 25, 25)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고 자신의 인생을 누가 대신 해결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보호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피해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왜 나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잘 살아 있는데 왜 저만 그러죠?’ 이렇게 말하곤 한다.
- 무책임한 상태의 사람이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 탓, 내 주변 상황의 탓, 직장에서 무능한 사람 누군가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 군소리 많은 사람이라 남의 행위에 편견을 가지며, 무엇이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지니고 삽니다.
- 자만하는 태도를 지니며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즉, 성공했던 과거만 기억합니다.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테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루카 10,33-35)

현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백

전능하신 천주님과 형제자매님들께 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부모, 이모, 형들과 함께 모여 재미있게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살 때쯤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제가 4살 때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기에 두 형들은 양자로 보내지고 저는 이웃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제가 8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 없는 저는 식음을 전폐하며 남의 집 머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번 못 밟아보고 14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 보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낮 놓고 ‘ㄱ’자도 모르는 제가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슈퍼에서 물건을 배달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온종일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글만 알 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2년을 슈퍼에서 지내다가 아는 사람 소개로 경찰서 급사로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하던 중 친구들의 강요로 경찰서를 그만두고 남대문 시장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신교 전도사님의 소개로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배우던 중 사장님의 요구로 새벽반으로 공부 시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일도 충실할 수 없어 사직 후 월세방을 얻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술을 마시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 아는 사람의 소개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지며 열심히 일한 결과 신용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원증명서를 제출하며 제가 8개월 전과가 있음을 회사가 알게 되어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술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신용카드 빚은 늘어나고 술값을 갚을 길이 없어 절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거되어 저는 완전히 제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이 선고 되어 항소를 포기하고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천주교 집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리시간에 수녀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남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시다. 자신을 위해 산 것은 하나도 없고 남을 위한 삶을 사셨다.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남에게 마음으로도 사랑 한번 해준 적이 없는 저였기에 이제부터라도 물질적으로는 돕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며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나를 희생함으로써 과거의 저처럼 삶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하느님께 인도해 주신 형제님들과 신부님, 수녀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올림



오늘을 충실히

전문희 데레사_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찬미 예수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구치소 봉사도, 미사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게 살다가 잠시 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자꾸 미뤄지는 지금은 구치소 봉사했던 일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었던 지난날이 감사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못함을 알기에 봉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퍼지면서 미사도 못 가고 성체를 모시지 못해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더 괴로운 건 내가 회장으로 있는 기도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주 쉴 때는 편했는데 몸만 편했지,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만나지 않고 기도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카톡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냥 기도회 명맥만 잇자’,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 기도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평소 하던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기도회 진행 방식으로 카톡으로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갔지만,

시작 기도하고 유튜브에서 성가 따오고 성서 묵상, 묵주 기도하고 지향 기도 올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체강복, 성가까지 하니 1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기도회를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잠깐 카톡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충실히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구치소 봉사하며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이글을 끝맺을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충실히 살다 보면 그 끝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치포라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치포라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모세가 치포라와 결혼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인이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본 모세가 그 이집트인을 살해합니다. 그 사실이 알려졌다다는 것을 깨닫고 외국으로 피신을 한 모세는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인들을 구합니다. 이 연유로 지내게 되면서 미디안 사제의 딸 치포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모세가 도와준 덕에 대한 보답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망자 신분인 모세가 이방인 땅에서 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 큰 도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러자 치포라가 날카로운 차들을 가져다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치포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탈출 4,24-26)

치포라와 이십 년간 미디안 땅에서 살던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는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뜻을 알리는 모세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 게다가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자기 민족에게 큰 비난을 받을 스캔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아론과 미르암은 이방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난합니다(민수 12,1). 더욱이 모세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이집트인들의 “맡아들을 죽이겠다”(탈출 4,23)입니다.

성경 구절에서 모세의 이집트 여정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의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세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탈출 2,22)며 이름 붙인 자기 아들 게르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맡아들 역시 이방인의 맡아들이었기에, 이방인의 맡아들을 죽인다는 야훼 하느님의 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인지, 이집트인인지, 이제는 미디안 땅에서 오랜 삶을 살아가는 미디안 사람인지에 대해 정체성을 헷갈려하고 또한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내의 품습대로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율법과 이민족의 품습 속에서 갈등하고 압박을 느끼는 모세의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세 앞에서 치포라는 과감히 돌로 자기 아들을 할례 시킵니다. 이 모습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신으로 여겨집니다)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지만, 아기 엄마와 누이의 대담함과 기지로 살 수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치포라의 기지로 모세와 자기 아들까지 살린 것입니다.

최근에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과 그 가족들이 ‘특별공로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을 다시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준 사람 그 당사자들 몇 명만 구해주면 우리의 역할은 다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벽을 쌓아 놓고 가로막아 넘어오지 못하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프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정말 다른 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에 그렇게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한 것일까요? 작년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부의 난민 인정은 차치하고라도,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한 번 살펴봅시다. 잠재적 범죄자,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로 그려지는 모습들, 우리와 품습과 종교가 달라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사람들. 우리도 서양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잣대로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이기 꺼리고 있습니다. 난민을 못 받아들인다면 쌓아 올린 벽이 오히려 높아져서 우리를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한 차별의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힘들게 데려온 ‘특별공로자’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차별의 시선 속에 과연 무난히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할 때, 치포라는 과감히 실천하여 나아갑니다.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했다며 모세를 비난한 미르암은 악성 피부병이 걸립니다(민수 12,10). 다름을 비난하고, 이방인을 꺼림직하게 바라보기보다 그 차별을 규정짓는 여러 현실을 고쳐나가고 사랑을 과감히 실천해야 우리도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성장하자' (2)

주00 / 2021년 창업 대출자

▶ 현재 업종에 대해 예비창업자에게 충고해준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일단 부딪혀 보십시오. 상황이 힘들다면 직장생활과 병행을 해보세요. 확신을 가진 후에 사업에 몰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된다? 못하겠다? 6개월만 해보십시오. 끈기 있게 열심히 했다면 원하는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일단 해보십시오. 본인이 현재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끈기 있게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2년 안에 많은 것을 이룰 거라 확신합니다.

▶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하고자 하는 주변의 예비창업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주의사항이나 당부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인의 업종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창업을 하신다면,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표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를 정해집니다. 나의 돈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보이지 않을 뿐. 마음가짐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입니다.

▶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불만 사항과 개선 점을 제시한다면?

없습니다. 정말 한 부분도 없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한분 한분이 조금씩 후원해주신 돈이 모여서 저희 창업자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책임감이 강해졌고 함께 나아가주시는 동행하는 응원단이 정말 많이 계신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정서에 갑, 을이 아닌 동, 행으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종이 한 장에서부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민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본인을 도와주신 만큼 본인 또한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성서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보내온 그 어떤 책과 잡지들보다 반갑고 값지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걸려서 신부님께서 따로 보내신 서신이 도착했네요.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사는 비록 못 드리지만, 저를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신부님의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다독여 주시는 느낌을 받아서일까요?

눈물이 흐르는 동안 하느님께 속죄하듯 뭔가를 쏟아내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동안의 여기에서 힘듦과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잠시나마 신부님 덕에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다 쏟아내고나니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제를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 이말 저말 막 말씀드리다 마치고 했는데 이제는 정했어요.

“주님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반복된 실수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상고만을 앞둔 저의 갈림길 앞에서 부디 좋은 길로 인도하여주소서.”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미사 때 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2021. 08. 16.

클라라 올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자매님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12월까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교정시설 흑서기 아이스크림 지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 청소년들에게는 7, 8월 매주 1회(총 10회)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각 교정시설 추석 간식 지원



한가위를 맞이하여 서울남부구치소는 호박설기,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남부교도소는 약과 간식이 모든 수용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더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명절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안내

- ▶ 1주 월요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2주 월요일 중서울 길음동 성당
- ▶ 3주 월요일 동서울 광장동 성당
- ▶ 4주 월요일 서서울 양천동 성당

오전 10시 30분

* 2022년부터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가 매주 지역별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 수용자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일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원주교구 <꿀 고구마> 판매

원주교구 교정사목에서 출소한 형제들과 함께 농사를 지은 **'꿀고구마'**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금액: 5kg 15,000원
10kg 30,000원
※ 택배비 3,000원 별도
- ▶ 농협 / 301-0219-5831-81
(재)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 ▶ 구입 문의: 010-9057-1268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8/13~9/13)

2021년 8월~9월에는 **故김나연** 율리안나, **김인순** 소피아, **박소정** 테오필라, **이승자** 노엘라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경애** 유스다, **노인숙** 젤마, **안승중** 미카엘, **최승호** 세례자요한, **의료법인삼광의료재단**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톡 채널

밀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